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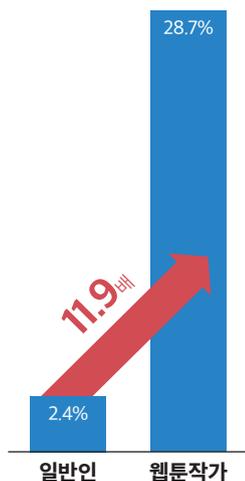
웹툰 작가가 아프다 ‘불공정 계약 경험’ 2명 중 1명 넘어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얼마 전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했다. 어린 시절 <슬램덩크> 만화책이 출간되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요즘은 만화를 책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 전성기를 누리던 출판만화 시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최대 적수를 만나면서 침체기에 빠졌다. 그렇다고 ‘만화’가 죽은 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과 만나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더 거대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K-웹툰’ 시장 규모는 1조원대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제는 ‘만화가’라는 말이 ‘웹툰 작가’라는 단어보다 더 생소하게 들리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웹툰 작가의 삶의 질은 만화가 혹은 만화가 지망생의 그것보다 나아졌을까.

웹툰작가 우울증 발병률



출처 : ‘웹툰 작가 정신건강 및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조사’

일반인 대비 11.9배나 높은 우울증 발병률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건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공모로 실시된 ‘웹툰 작가 정신건강 및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연구팀은 1년간 웹툰 작가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전업작가 32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한국만화가협회 등에 소속된 웹툰 작가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했다. 그 결과 28.7%가 우울증상을 진단받았다. 일반인의 2.4%에 비해 11.9배 높은 수치다. 그중 28.3%는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17.3%는 자살 생각을 했고 8.5%가 자살 계획을 세웠다. 실제 시도한 사람도 4%였다.

출판물 자리를 대신한 ‘플랫폼’은 주 1회 연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실패 조사에서 웹툰 작가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9.9시간, 마감 전날은 11.8시

간을 일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질환과 방광염, 위장질환과 안과질환의 발병률도 높았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매주 1회 연재를 위해 평균 70컷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스토리 구성-콘티 작성-70컷 밑그림-70컷 펜터치-70컷 채색-대사 편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작가들은 “영혼을 갈아 넣어 겨우 70컷을 그린다”고 토로한다. 애초 작품 전시공간이었던 플랫폼이 이제는 노동시간과 강도를 결정하는 ‘사용자’ 노릇을 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민지희 한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임의는 “작가들은 프로모션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걱정해 플랫폼의 수정 지시나 과도한 간섭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한다. 웹툰 작가들은 프리랜서지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웹툰 작가의 건강 문제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산업의 구조적 병폐부터 치료 나서야

연구팀은 당장 ‘1회당 70컷, 주 1회 업로드’의 과도한 노동량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1주 평균 45~50컷이었는데 2년 새 30%가 증가했다. 웹툰 플랫폼 기업들은 웹툰 작가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창작자들은 컷수와 세이브 원고(예비용 원고)의 압박이 심하다고 호소한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차감 MG(미니멈 개런티) 같은 웹툰 산업의 구조적 병폐가 자리하고 있다.

웹툰 작가와 플랫폼 간의 불균형적인 관계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콘텐츠진흥원의 ‘웹툰산업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작가 58.9%가 불공정 계약이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산업 관계자들과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지난해 12월 16일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웹툰 작가들은 1월 11일 “일방적인 표준계약서 개악을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약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웹툰 작가들에 필요한 휴식권이나 정산정보 공개 관련 내용은 ‘모호’한 합의의 영역으로 남기고, 플랫폼 기업의 배타적 발행권 등 독점적 권리는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웹툰 산업의 상처가 깊어 벌어졌다. 웹툰 창작자들이 아프면, 웹툰 산업도 아프다. 병을 키워서는 안 된다. 🙄

우울증이 발병한 웹툰작가들의 증상

수면 장애	28.3%
자살 생각	17.3%
자살 기도	8.5%
자살 시도	4%

출처 : ‘웹툰 작가 정신건강 및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조사’